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꼼짝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꼼짝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꼼짝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꼼짝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몸을 둔하고 느리게 조금 움직이는 모양. ‘곰작’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대
몸작	-	-	-
곰작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몸을 둔하고 느리게 조금 움직이는 모양. ‘곰작’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꼼작'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몸을 둔하고 느리게 조금 움직이는 모양. ‘곰작’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 꼼작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꼼작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꼼작 사전 표기 요약	—	—	—	—	●→	●→
곰작 사전 표기 요약	—	—	—	—	—	●→
꼼작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꼼작
19세기20세기
- 곰작
20세기현재

↳ 꾹쌔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꾹쌔’의 옛말인 ‘쌔쌔’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 표기와 소리의 특징

19세기에 나타나는 ‘쌔쌔’은 근대 국어 시기에 ‘자’와 ‘ㅈ’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 것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꾹쌔’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 문헌 속의 꾹쌔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쌔쌔, 쌔쌔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쌔쌔, 쌔쌔

📖 출처 1895 천로역정 02:139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절망이 히 쓰기를 기드려 옥에 가서 량인이 다 상후야 윈 몸을 쌔쌔 못함을 보고 소리를 질너 골우디.

📖 현대어 풀이

절망이 해 뜨기를 기다려 옥에 가서 두 사람이 다 상하여 온몸을 꾹쌔 못함을 보고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출처 1897 독립신문 7월 17일 1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입 안에 독한 약이 들어 다른 짐승을 물어 약을 너 늦커드면 그 물닌 짐승이 그몬 그 독에 익이 지 못후야 쏘쌈 못후는 고로.

원 현대어 풀이

(거미의) 입 안에 독액이 들어 있어 다른 짐승을 물어 약을 넣어 놓으면 그 물린 짐승이 그만 그 독을 이기지 못하여 꼼짝 못하는 까닭에.

출처 1897 독립신문 7월 17일 2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이 그 틀에 었던 어림업는 짐승이 걸니거드면 검의가 그것의게 덤벼 어디를 혼 번 물고 독약을 너어 늦커드면 그 짐승이 쏘쌈 못후고 감안히 잇거던.

원 현대어 풀이

"이 그물에 어떤 어림없는 짐승이 걸렸을 때 거미가 그것에게 덤벼 어디를 한 번 물고 독약을 넣어 놓으면 그 짐승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거든.

20세기 쏘쌈, 꼼짝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쏘쌈, 꼼짝

출처 1912 옥호기연 12

용례 04

66 문헌 용례

쏘쌈도 못후고 얼마를 업혀 왔던지 한 곳에 이르러 니려놋터니.

원 현대어 풀이

꼼짝도 못하고 얼마를 업혀 왔던지 한 곳에 이르러 내려놓더니.

출처 1936 삼천리 제8권 제11호 249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그 총각은 함정에 빠진 토끼와 같이 되어 꿈쩍 못하고 사령들에게 사로잡혔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1 삼천리 제13권 제12호 150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그러나 그는 좀체로 응답이 없다. 또 한 번, 다시 한 번 두다으나 오직 목을 『자라』처럼 트러박고 꿈쩍 않는다. 그 사나이는 『新兵』이었던 것이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꿈쩍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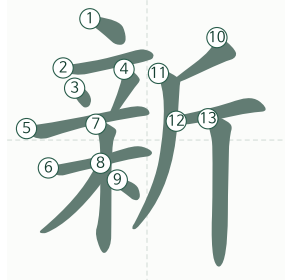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꿈쩍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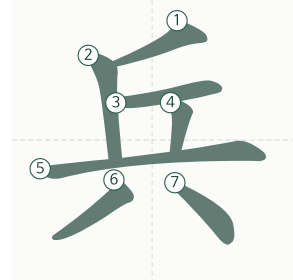
뜻·음 새 신
총 13획 · 부수 斤



hanja.wordrow.kr/한자/新/

兵

뜻·음 병사 병
총 7획 · 부수 八



hanja.wordrow.kr/한자/兵/